

제지, 하반기도 호황 지속전망

한솔제지, 매출 9000억원 상회 ... 신무림 · 한국 · 계성도 호조

2002년 상반기에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한 국내 제지기업들이 하반기에도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부산아시안게임 등의 특수으로 국내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하반기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솔제지는 2002년 경영목표인 매출 9000억원과 경상이익 10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매출 4921억원, 영업이익 862억원, 경상이익 501억원을 기록했다.

한솔제지는 2001년 매출 8915억원에 당기순손실 31억원을 기록했으나, 계절적 수요가 많은 하반기에 매출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하반기 영업실적이 상반기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무림제지도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수요확대에 따라 하반기에도 매출이 크게 늘어나 2001년 매출이 4500억원, 경상이익이 55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에는 매출 2020억원, 경상이익 341억원을 기록했다. 2002년 상반기 매출은 2001년 상반기의 1907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경상이익은 15억원에 비해 21배 늘어났다.

인쇄용지 수급상황(2001)

(단위: 1000M/T, %)

구 분	공 급						수 요					
	생 산	증감율	수 입	증감율	계	증감율	내 수	증감율	수 출	증감율	계	증감율
백 상 지	549	▲1.1	78	▲1.3	627	▲1.1	555	3.5	11	▲15.4	566	3.1
중 질 지	131	▲19.1	-	-	131	▲19.1	137	▲16.0	-	-	137	▲16.0
아 트 지	1,454	12.1	36	▲16.3	1,490	11.2	538	14.7	926	14.6	1,464	14.6
합 계	2,134	6.0	114	▲6.6	2,248	5.2	1,230	5.3	937	14.1	2,167	8.9

한국제지는 창사이래 최고의 경상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매출액이 1601억원으로 26.9% 늘었고, 경상이익은 사상 최대인 285억원을 기록해 4.2배 증가했다. 2001년 한해의 경상이익 245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계성제지, 남한, 풍만제지를 보유한 계성제지그룹도 2002년 목표치 수정을 검토중이다. 예상외로 매출과 경상이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계성제지그룹은 2002년 상반기에 2644억원 매출과 경상이익 216억원을 기록했는데 2001년 상반기의 경상적자 86억원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쇄용지 수급상황(2000)

(단위: 1000M/T, %)

구 분	공 급						수 요					
	생 산	증감율	수 입	증감율	계	증감율	내 수	증감율	수 출	증감율	계	증감율
백 상 지	555	7.8	79	27.4	634	9.9	536	9.8	13	▲48.0	549	7.0
중 질 지	162	▲3.0	-	-	162	▲3.0	163	▲5.2	-	-	163	▲5.2
아 트 지	1,297	8.6	43	43.3	1,340	9.5	469	25.4	808	▲2.4	1,277	6.2
합 계	2,014	7.4	122	32.6	2,136	8.5	1,168	13.0	821	▲3.8	1,989	5.4

특히, 계성제지는 1397억원의 매출과 경상이익 18억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계성제지는 2001년 상반기에 매출 1265억원, 경상적자 56억원을 기록했었다.

제지업계는 "종이의 주원료인 펄프가격이 톤당 10-20달러 올랐지만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환율하락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어 2002년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